

전통사상과 협동방식을 이용한 산학협력의 방향연구

Traditional thinking and collaborative approach of considering the direction of Cooperation

조 규 명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그래픽디자인과

Cho kyu-myung

Gyeonggi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요약

산학협력은 대학과 기업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구성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단기성 또는 일회성이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 이유는 연구 결과 또는 연구여건, 내용 등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산학협력에 대해 참여주체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심리적 갈등 및 불만족이 주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오래전부터 우리의 내면에 잠재되어있는 전통의식과 공동체적 협동방식에서 산학협력의 문제점 발생요인에 대한 원인 및 해결방안을 파악하여 산학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I. 서론

21세기 지식사회 및 고도 산업사회의 도래는 가치 있는 지식의 생산과 활용이 무엇보다도 우선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과 기업 및 다양한 연구기관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동안 이들 기관은 주로 각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중심으로 각자의 상황에 부응하는 지식을 생산하여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 패러다임의 지식사회 및 고도산업사회의 도래에 따라 변화는 개인이나 단독기관 하나의 능력만으로는 변화의 속도에 필요한 지식의 생산 및 활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간의 협력에 대해 관심이 매우 큰 상황이다. 최근들어 각 주체별로 상생적 상호 협력을 위해 정부와 대학, 정부와 기업, 기업과 대학, 대학, 정부와 대학과 기업 간에 상호간의 공동 이익을 확보하는 협력과정으로, 상호간에 협력 체계를 더욱 긴밀히 형성하여 시너지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은 두 참여주체 간의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내면적으로는 상호 간에 불만족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소원한 관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 협력을 위한 결속에 근본적인 장애를 주고 있는 요인을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형성과 전통적 협력방식에서 해결점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학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II.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전통적 협동방식

1. 한국인의 의식구조

인간의 의식구조는 의식구조의 형성 배경이 되는 사회의 종교와 언어에서 출발하였고 특히 한국인의 의식은 유교적 가치관인 권위의 관계, 집합주의 적 성격, 물질보다는 정신적, 인간적 가치를 강조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여 전통적 가치체계가 형성되었다. 특히 유교의 실천 도덕인 효(孝)사상은 사회구조 속에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사람 간의 관계를 상(上), 하(下)의 서열관계로 자리 잡는 배경이 되었다. 이소연(2005)은 유교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 가치체계에 의해 형성된 한국인의 고유한 의식구조의 특성을 첫째, 집단주의, 둘째, 서열을 중시하는 권위주의, 셋째, 강한 연고주의, 넷째, 지나친 운정주의로 구분하였다.[1]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일부 긍정적 작용을 하여 산업화 시대에 노동집약을 통한 경제 가치를 일궈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으나, 정보화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적 흐름에 부조화를 초래하고, 산업사회가 제공한 물질적 풍요 및 합리주의적 가치관은 그 동안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었던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2. 전통적 협동방식의 배경 및 유형

2.1. 두레

두레는 원시적 유품인 공동노동조직이며, 농촌 사회의 상호 협력, 감찰을 목적으로 조직된 촌락 단위이다. 한국 사회에서 힘든 노동을 함께 나누는 공동 노동 풍습으로, 조선 후기 이양법이 전개되면서 보편적인 농민 생활풍습으로 정착되었다. 두레가 이행하는 공동노동의 형태는 모내기·물대기·김매기·벼 베기·타작 등 논농사 경작 전 과정에 적용이 되었으며, 특히 많은 인력이 합심하여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거의 반드시 두레가 동원되었다. 두레는 농민생활풍습의 바탕이 되기도 하였으며, 소농경영(小農經營)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되어, 공동노동으로서의 진취성과 농민들의 자주적 성격이 매우 강한 긍정적인 조직이다.

2.2. 향약[鄉約]

향약은 시행주체·규모·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었으며 향촌 규약이나 그 규약에 근거한 조직체를 일컫는 말로써, '일향(一鄕)의 약속(約束)'을 줄인 말로 중국 남송의 주희가 정리한 향약 또는 그를 바탕으로 향촌사회의 사정에 따라 내용을 바꾼 것을 말한다. 향약은 사족 중심의 자치규범이기도 하며 유교적 가치관에 기초를 둔 4강목을 통해 구체적인 행위규범을 설정하여 공동체적으로 강제 규제하는 향촌 통제조직이다.

2.3. 계[契]

계는 한국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상부상조(相扶相助)의 민간협동체로, 한국의 곳곳에 존재해 온 사회조직으로 삼한시대(三韓時代)에까지 소급되는 공동행사의 하나로 상호부조라는 주된 목적 아래 취미 또는 생활양식의 공통분야까지도 생활 속에 보편적으로 존속하고 있다. 생활공동체로서의 계는 고대도 실공동체사회 이래 존속해왔어 이계의 종류와 분류는 학설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목적·구성원·지역·기능·운영방법에 따라 단순 친목사교계, 지역 주민을 망라한 공동체계, 기타 특정 목적을 가진 각종 계로 나눈다.

2.4. 품앗이

품앗이는 서로 노동력을 교환하여 돕는 공동노동으로, 일을 하는 '품'과 교환한다는 '앗이'가 결합된 말이다. 한국의 공동 노동관행 중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었다. 품앗이는 베푸는 쪽과 그것을 보답하는 쪽 두 당사자를 항상 포함하게 된다. 품에 대해 보답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반드시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다. 두레보다 규모가 작고 단순한 임의의 작업에서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사로운 일에 쓰임이 많았다 [2].

Ⅲ. 전통적 협동방식을 도입한 산학협력 방향

산학협력에서 뜻하는 협력(協力)이란,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의 의미로, 구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우리의 경우에는 협동의 의미가 강하다. 협력에 비해 협동(協同)은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는 것'으로[3], 우리의 전통적 입장에서 보면 일 중심의 협력보다 사람중심의 협동의 의미가 더 내포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는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우선되기 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는 공정심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의 중 특징은 우리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구조 및 전통적 협력방식에 대한 이해의 소홀과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협력방식은 오랫동안 토속신앙과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생존을 위한 공동체조직인 두레, 향약, 계, 품앗이 등을 구성하게 했던 친밀한 연대적 공동체 의식이 해방 이후 개인 중심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물질적 가치에 정신적 가치가 밀려나면서부터 공존, 공생적 관계를 중요시 한 "우리"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 시하는 "나"로 바꿈을 알 수 있었다. 즉, 산학협력이 과거 전통적 협동방식과는 다르게 협력에 대한 연대적 공동체 의식이 현격히 결여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참여주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여주체 간 심리적 관계 강화의 측면을 통해 산학협력을 보다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네 가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첫째는 협동과 협력의 융화이다. 둘째는, 내면에 자리 잡은 집단주의적 의식을 이해하여 산학협력을 가족적 인간관계와 같은 정(情)을 근간으로 한 협력을 추구해야 해야 한다. 셋째는, 공동체 사회의 근본원리인 공평, 호혜를 바탕으로 한 이익의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약, 두레, 계 등 전통적인 협동방식이 추구했던 것처럼 산학협력이 참여주체간의 생존을 위한 활동으로써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간의 결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이소연, "한국적 리더십에 관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1-57, 2005.
- [2] 네이버 사전, <http://www.naver.com> 요약
- [3] 네이버 사전, <http://www.naver.com>